

CEO Report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2017. 7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경제·금융시장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9
3. 국내금융시장	21
 II. 보험시장	 28
1. 보험산업 총괄	28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0

I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모두 둔화되면서 2015년보다 0.1%p 하락한 3.1%를 기록함¹⁾

- 2016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보다 0.4%p 하락한 1.7%,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한 4.1%임
- 2016년 미국, 중국,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각각 1.0%p, 0.3%p, 0.2%p 하락하였고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함

▣ 2017년 1/4분기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함²⁾

-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와 함께 정부지출이 감소하면서 2016년 4/4분기보다 0.4%p 하락한 0.7%(연율화)를 기록함
- 1/4분기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견조함에도 소비증가세의 둔화로 전분기 대비 1.3%³⁾ 성장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5); Eurostat(2017. 6); 일본 내각부(2016. 6); 중국 국가통계국(2017. 4)

3) 중국 데이터는 연율 통계로 측정되지 않아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작성

- 유로지역의 경우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3%(연율화)를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1.0%(연율화) 성장함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¹⁾	4.2	3.5	3.3	3.4	3.2	-	-	-	-	3.1	-
선진국 ¹⁾	1.7	1.2	1.3	2.0	2.1	1.5		2.1		1.7	-
신흥국 ¹⁾	6.3	5.4	5.1	4.7	4.2	4.2		4.4		4.1	-
미국 ²⁾	1.6	2.2	1.5	2.4	2.6	0.8	1.4	3.5	2.1	1.6	0.7
중국 ³⁾	9.5	7.7	7.7	7.3	7.0	1.3	1.9	1.8	1.7	6.7	1.3
유로지역 ⁴⁾	1.5	-0.9	-0.3	1.2	2.0	2.1	1.4	1.8	2.1	1.8	2.3
일본 ⁵⁾	-0.1	1.5	2.0	0.3	1.1	2.5	1.6	1.0	1.4	1.0	1.0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화 수치이나,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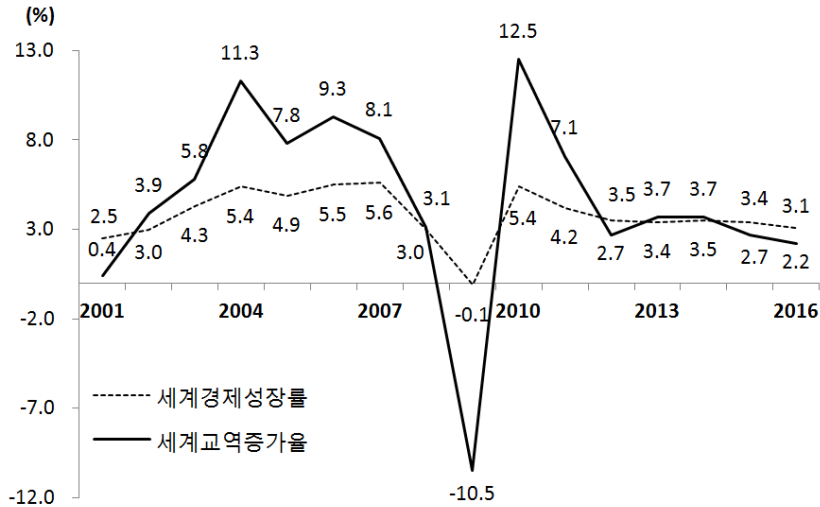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5)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4)

4) Eurostat(2017. 6)

5) 일본 내각부(2017. 6)

■그림 I-1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4)

☐ 한편, 세계 교역량은 2012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은 2.2% 증가에 그침

● 선진국의 수출입 감소로 2010년 이래 최저점을 기록함

☐ 2016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3년 만에 상승세를 보이며 12월 말 배럴당 53.7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

● 주요 산유국인 OPEC과 러시아 등이 감산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 완화 기대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⁴⁾

☐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2016년 12월 말 주요 선진국 주가는 상승하였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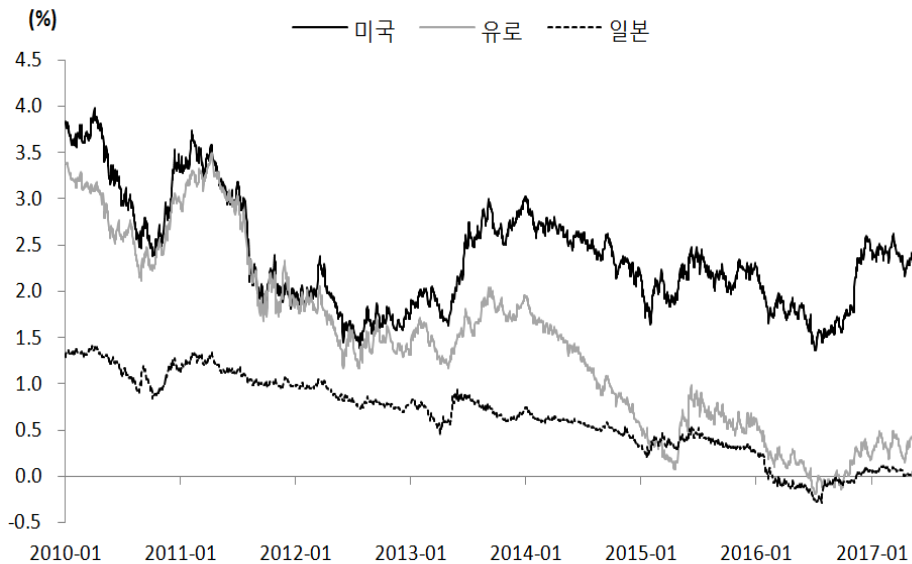
4) 국제금융센터(2017. 1),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2016년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미국(다우 +13.4%), 일본(Nikkei 225 +0.4%), 유럽(유로 Stoxx +1.5%) 등 선진국 증시는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중국(상하이종합 -12.3%) 및 신흥국(MSCI EM -0.2%)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탈로 약세를 보임⁵⁾

■ 2016년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주요 선진국의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로지역 및 일본의 금리가 모두 상승함

- 유로지역 금리는 인플레이션 확대와 ECB 자산매입방식 조정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본 국채 금리도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으로 상승세를 보임

■ 그림 I-2 미국, 유로, 일본 1국채 금리(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5) 국제금융센터(2017. 2. 2), “국제금융 Inside”

☐ IMF는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산업활동의 회복세로 2016년보다 0.4%p 상승한 3.5%로 전망함⁶⁾

- 2017년 4월 발표된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성장세로 2016년 10월 전망치 대비 0.1%p 상향 조정됨
 -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되었고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p 하향 조정됨
 - 중기적으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견조한 소비 증가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모멘텀에 자본시장 강세와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고령화와 총요소생산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2017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확장적 재정정책, 금융여건 개선, 유로화 약세 등으로 1.7%로 전망됨
 - 주요국의 선거일정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중기적으로는 낮은 생산성, 일부 국가의 부실채권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6년 10월 0.6%에서 2017년 4월 1.2%로 상향 조정됨
 - 2016년부터 지속된 순수출이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음

6)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 중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및 공공 투자 확대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6.6%로 전망됨
 - 그러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정책 및 투자에 대한 낮은 신인도가 성장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표 I-2 전망기관별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IMF	2016.10	3.4	1.8	4.6	2.2	1.5	0.6	6.2
	2017. 4	3.5	2.0	4.5	2.3	1.7	1.2	6.6
OECD	2016.11	3.3	-	-	2.3	1.6	1.0	6.4
	2017. 6	3.5	-	-	2.1	1.8	1.4	6.6
World Bank ¹⁾	2016. 6	2.8	1.9	4.4	2.2	1.6	0.5	6.5
	2017. 1	2.7	1.8	4.2	2.2	1.5	0.9	6.5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OEC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World Bank는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하였고, OECD는 3.5%로 상향 조정하였음

- World Bank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각국의 보호주의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⁷⁾
- 반면 OECD는 글로벌 세계경제가 교역량 회복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함⁸⁾

7) World Bank(2017. 1), Global Economic Prospects

8) OECD(2017. 6), OECD Economic Outlook

☒ 2017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설비투자 회복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⁹⁾

-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6년 2.2%에서 2017년 3.8%로 1.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선진국은 2016년 2.1%에서 2017년 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국은 2015년 2.5%에서 2016년 3.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율도 선진국은 2016년 2.4%에서 2017년 4.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국은 2016년 1.9%에서 2017년 4.5%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2017년 국제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합의로 상승할 것이나 미국 등 비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 국제 금융시장여건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¹⁰⁾

- OPEC의 원유 감산 합의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여부와 달러화 가치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음

☒ 2017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¹¹⁾

- 미국과 영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9)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10)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11)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 2017년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미 연준의 경기 둔화 진단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¹²⁾

- 유로화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확대될 경우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엔화는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및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위안화는 정부의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표 I-3 주요 투자은행 2017년 환율 전망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4	4/4	3/4	4/4	3/4	4/4
중간값	1.10	1.10	114	115	6.97	7.00
평균	1.10	1.10	113	114	6.97	7.01
최고	1.20	1.19	125	123	7.50	7.60
최저	1.01	1.00	103	100	6.79	6.75

주: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로 기준일은 2017. 6. 2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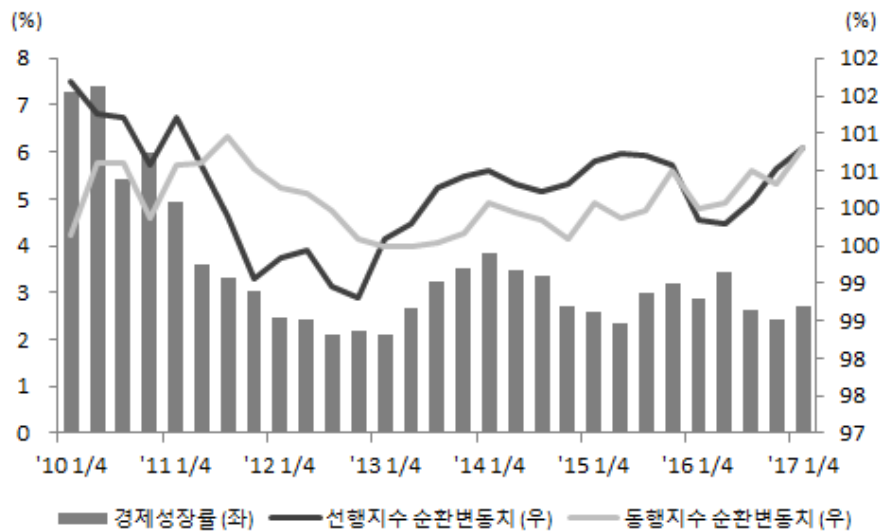
12) 국제금융센터(2017. 6. 5), “주요 투자은행 환율 전망”

2. 국내경제

〈성장〉

- 2016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건설투자 증가를 제외하고는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회복 지연으로 전년과 동일한 2.8% 성장에 그침
 - 2017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함
 -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6년 2/4분기 이후 기준치(100)를 소폭 상회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I-3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었으나 건설투자 증가가 내수를 견인하였으며, 수출 부진은 지속됨

- 2016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해외 및 서비스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1.5%)보다 높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율을 기록함
- 2016년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함
 - 2017년 1/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의 글로벌 업황 개선으로 인한 기계류 투자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4.4% 증가함
- 2016년 건설투자는 시중 유동성의 주택 재건축 시장 유입으로 인해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 2017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증가한 분양물건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함
- 2016년 지식생산물투자는 2/4분기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R&D 투자 중심으로 개선되며 전년 대비 2.3%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R&D 및 소프트웨어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함
- 2016년 재화수출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투자 및 교역 둔화,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 주요 경쟁국 통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침
 - 2017년 1/4분기 재화수출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단가 상승 및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함

■ 표 I-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8	2.9	3.4	2.6	2.4	2.8	2.9
-민간소비	2.2	2.3	3.5	2.7	1.5	2.5	2.0
-설비투자	4.7	-4.6	-2.9	-3.9	2.0	-2.3	14.4
-건설투자	6.6	9.0	10.6	11.2	11.6	10.7	11.3
-지식생산물투자	1.8	1.0	2.7	2.7	2.6	2.3	2.7
-재화수출	-0.6	0.4	2.3	3.9	2.1	2.2	6.6
-재화수입	0.7	1.8	3.7	5.3	3.7	3.6	10.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7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전년과 동일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가 글로벌 투자 및 교역 증대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¹³⁾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 기업부채 부실화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유가 상승,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여력 저하 및 가계부채, 실질소득 감소 등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13) IMF(2017. 4. 18), World Economic Outlook

표 I-5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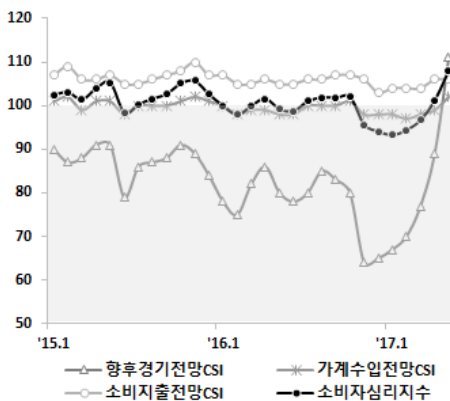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F) ¹⁾
실질GDP 성장률	3.3	2.8	2.8	2.8
(명목GDP)	4.0	5.3	4.7	5.4
민간소비	1.7	2.2	2.5	2.5
설비투자	6.0	4.7	-2.3	5.7
건설투자	1.1	6.6	10.7	4.2
지식생산물투자	5.4	1.8	2.3	2.5
재화수출	1.1	-0.6	2.2	4.0
재화수입	0.5	0.7	3.6	9.1
실업률	3.5	3.6	3.7	3.7
(고용률)	(60.2)	(60.3)	(60.4)	(60.5)
소비자물가	1.3	0.7	1.0	2.0
경상수지(억 달러)	843.7	1,059.4	986.8	786.8
상품수지(억 달러)	888.9	1,222.7	1,204.5	1,086.1
상품수출(억 달러)	6,130.2	5,428.8	5,117.8	5,455.7
(증가율)	(-0.8)	(-11.4)	(-5.7)	(6.6)
상품수입(억 달러)	5,241.4	4,206.1	3,913.3	4,369.6
(증가율)	(-2.1)	(-19.8)	(-7.0)	(11.7)

주: 1) 20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소비심리개선¹⁴⁾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및 구매력 저하로 인해 전년과 동일한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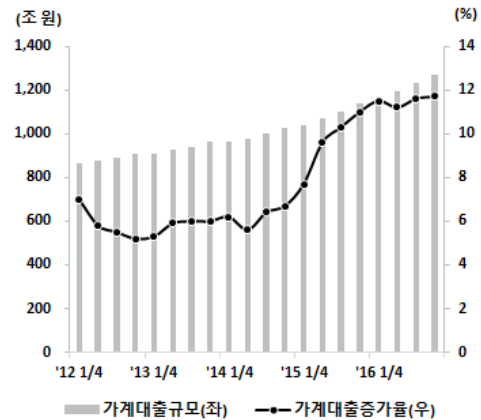
-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 개선, 정부의 소비장려정책¹⁵⁾ 등은 민간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물가 상승,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그림 I-4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I-5 가계대출규모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업종 중심의 기업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년 대비 8.0%p 상승한 5.7%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글로벌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는 생산 설비 증설 등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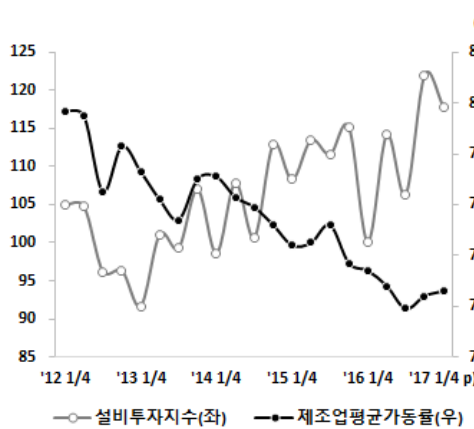
14)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4월과 5월에 각각 101.2, 108.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15)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심리 제고',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방안을 발표함(관계부처 합동(2017. 2. 23), "경제버팀목, 내수를 다시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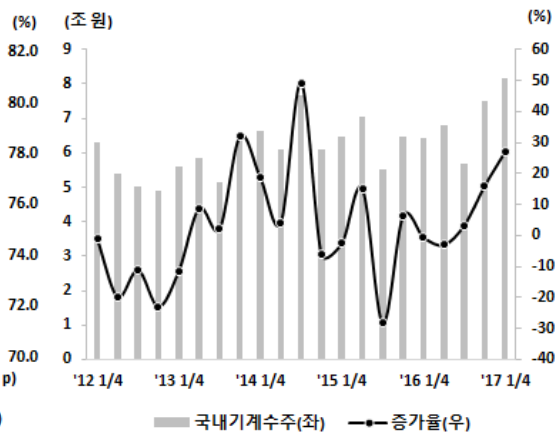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역시 2017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그러나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0%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설비투자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¹⁶⁾

■그림 I-6 제조업 평균가동률



■그림 II-7 국내기계수주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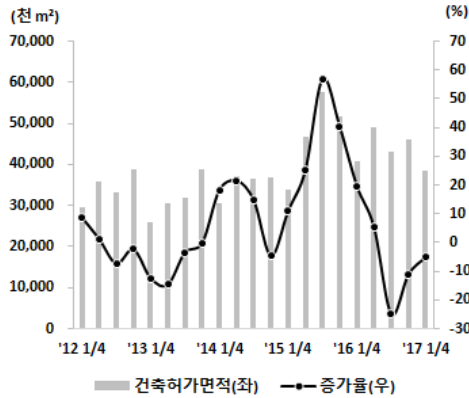
■ 2017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6.5%p 하락한 4.2%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5년~2016년 중 크게 증가한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가 2017년까지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강화 및 SOC 예산 규모 축소,¹⁷⁾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은 건설투자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 정대희·조덕상(2017. 4. 13),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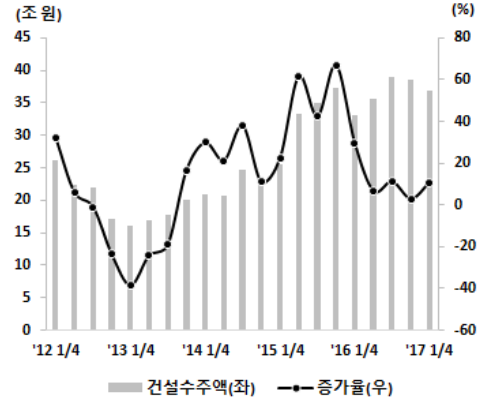
17) 2016년 23.3조 원 → 2017년 22.1조 원

■그림 I-8 건축허가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9 건설수주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R&D 및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정책으로 인한 예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의 R&D 예산 확대¹⁸⁾ 및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와 더불어 ITC 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민간기업의 R&D 투자 증가도 기대됨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투자 예산 증대에 따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차세대 컴퓨팅 등 신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¹⁹⁾

■ 2017년 재화수출 증가율은 세계경기 회복, 신흥국 수입수요 개선,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7%p 상승한 4.0%일 것으로 전망됨

- IMF, OECD²⁰⁾ 등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로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18) 2016년 18.9조 원 → 2017년 19.5조 원

19) 한국은행(2017. 4), 「경제전망보고서」

20) 주요기관의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IMF(2017. 4): 3.4% → 3.5% / OECD(2017. 6): 3.3% → 3.5%

-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 등은 세계교역 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직·간접적 무역규제 역시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재화수입의 경우 설비투자 확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

- 2016년 고용시장은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임
- 총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 명(1.2%) 증가에 그쳤으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자영업자 및 단기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함
 - 고용률은 청년과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역대최고치인 60.4%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3.7%를 나타냄
 - 특히,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7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7만 명(1.4%)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고, 고용률은 59.4%, 실업률은 4.3%를 기록함

표 I-6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 대비, %)

구분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총취업자(만 명)	2,594	2,555	2,639	2,655	2,645	2,624	2,592	2,658
(증가율)	(1.3)	(1.1)	(1.1)	(1.2)	(1.2)	(1.2)	(1.4)	(1.6)
고용률	60.3	59.1	60.8	61.1	60.7	60.4	59.4	60.8
실업률	3.6	4.3	3.8	3.6	3.2	3.7	4.3	4.2
경제활동인구(만 명)	2,691	2,671	2,742	2,754	2,733	2,725	2,708	2,775
(증가율)	(1.4)	(1.3)	(1.0)	(1.4)	(1.3)	(1.2)	(1.4)	(1.9)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7년 노동시장은 기업구조조정,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제약하에 경기 회복세 및 신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고용률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60.5%, 실업률은 전년과 유사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의 일자리중심 정책 기조, 수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및 경기 인식 개선 등이 고용 부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고용지표 개선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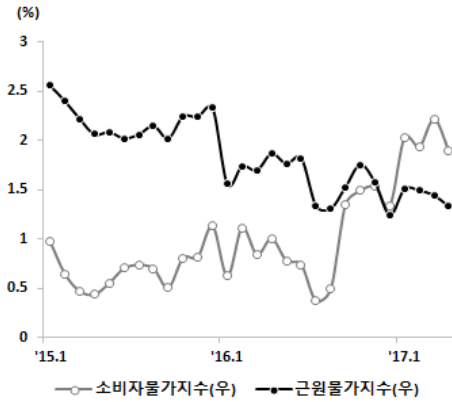
〈물가〉

- 2016년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하방 압력과 전기료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1.0% 상승에 그침
 -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²¹⁾ 상승률은 전년 대비 1.6%로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상회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주로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승 압력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감
- 2017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공급측 상승 압력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하겠으나 소비부진 지속 등 수요 측면의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7년 GDP 갭은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어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²²⁾

21)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외한 장기적이며 기조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등 두 가지의 근원인플레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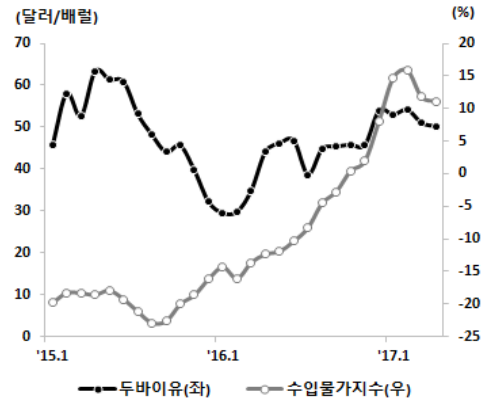
22) 한국은행(2015. 12. 16),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그림 I-10 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1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대외거래〉

2016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든 987억 달러를 기록함

- 2016년 상품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동반 감소함에 따라²³⁾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5,1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3,913억 달러를 기록함
- 2016년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심화로 1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149억 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됨
 - 한진해운 구조조정 및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운송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고, 건설수지도 해외 수주 감소로 인해 흑자 규모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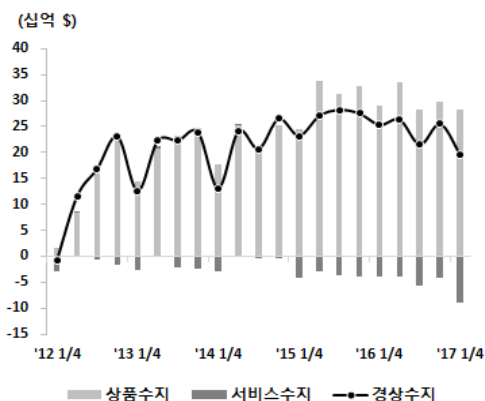
23) 한국은행(2017. 3), 「2016년도 연차보고서」

- 2017년 1/4분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한 1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는 내수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폭 확대로 282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으며, 서비스수지는 89억 달러 적자를 나타냄

■ 2017년 경상수지는 흑자 추세 유지가 예상되나 교역조건 악화 및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20.3% 감소한 78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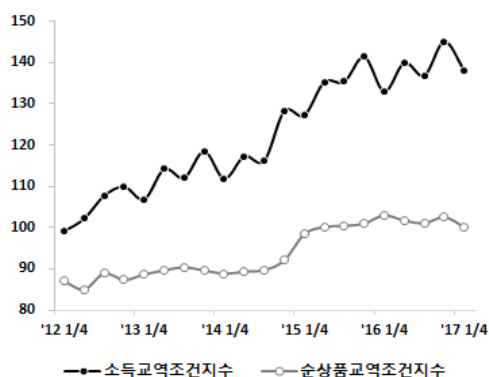
- 상품수지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 및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교역조건이 다소 악화되며 흑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5,456조 원,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37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수지는 해운업계 침체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 급증으로 인한 여행수지 악화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12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3 교역조건지수



자료: 한국은행

3. 국내금융시장

〈금리〉

-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이후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화될 전망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함
 - 수출과 투자 개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부양 의지 등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짐
- 2017년 국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북한 관련 리스크,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의 영향으로 1~5월 평균 1.68%를 기록함
 - 국채(3년) 금리는 2016년 말 미국 대선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나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국채-CD)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신용스프레드(회사채-국채)는 회사채(3년, AA-) 금리와 국채(3년) 금리의 상승세 가운데 회사채 금리의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53bp 수준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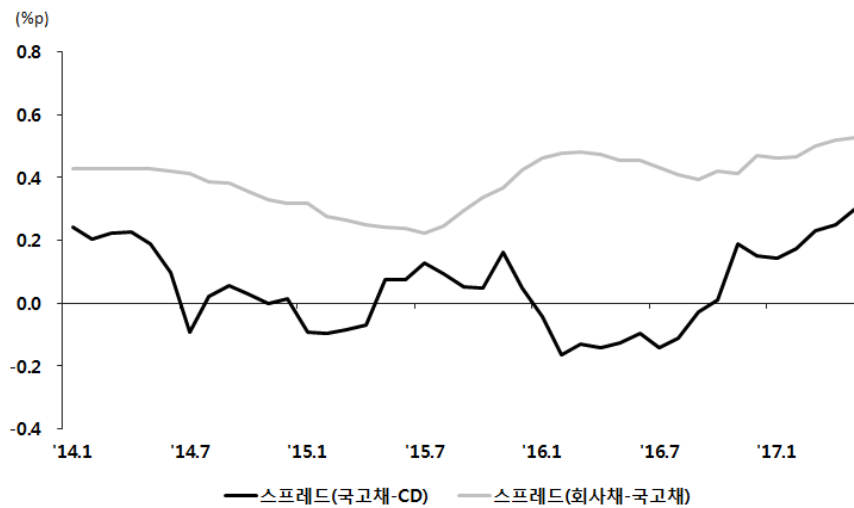
■ 표 I-7 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2016		2017					
	11	12	1	2	3	4	5	1~5월 평균
CD(91일)	1.42	1.54	1.50	1.49	1.48	1.43	1.39	1.46
국채(3년)	1.61	1.69	1.64	1.67	1.71	1.68	1.69	1.68
회사채(3년, AA-)	2.02	2.16	2.10	2.13	2.21	2.20	2.22	2.17
스프레드(국채-CD)	0.19	0.15	0.14	0.18	0.23	0.25	0.30	0.22
스프레드(회사채-국채)	0.41	0.47	0.46	0.47	0.50	0.52	0.53	0.49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14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7년 국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수출 증가,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16년보다 상승한 1.70% 내외로 전망함

- 2017년 상반기 국내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추경 등 경기에 대한 기대로 상승함
- 2017년 중 미국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2~3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국채(3년) 금리는 미국 국채(3년) 금리와의 동조화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그림 < I -15> 참조)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7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67%, 우리나라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는 각각 2.42%, 1.64%로 전망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하반기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에 대하여 1~5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1~5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3년물 국채 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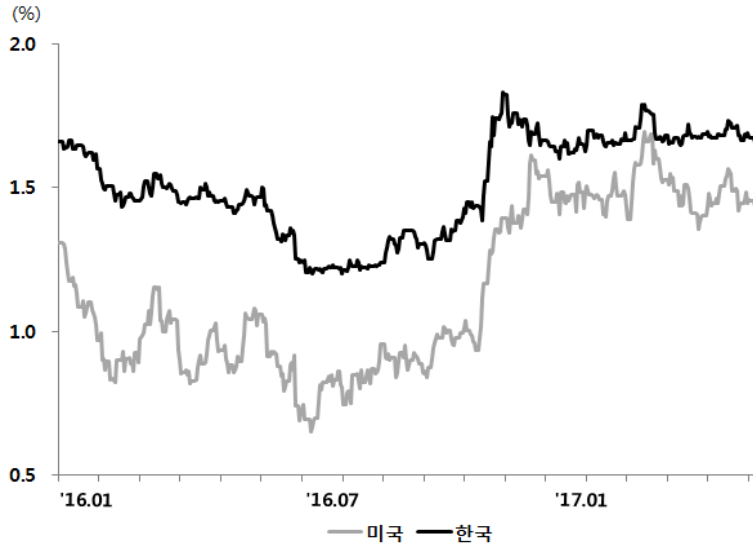
■ 표 I-8 한국 및 미국 국채(3년) 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2016			2017				
	10	11	12	1	2	3	4	5
국채(3년)	1.36	1.61	1.69	1.64	1.67	1.71	1.68	1.69
미국 국채(3년)	0.98	1.22	1.49	1.47	1.47	1.58	1.43	1.48
국채-미국 국채	0.38	0.39	0.20	0.17	0.20	0.13	0.25	0.21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I-15 한국 및 미국 국채(3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표 I-9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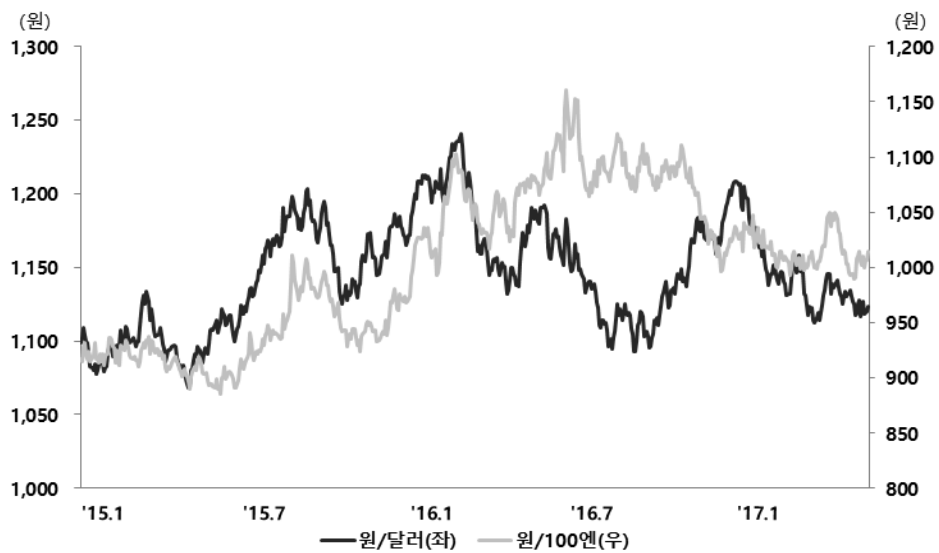
미국 국채(10년)		국내 국채(10년) 금리		국내 국채(3년) 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38	2.67	2.19	2.42	1.68	1.64

주: 2017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에서 5월 셋째 주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환율〉

- ❑ 달러화 약세 속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대선 이후 정치 안정 및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 미국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5월 말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45원임
- ❑ 원/엔 환율은 일본의 저물가 지속과 국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1~5월 평균 원/엔 환율은 1,016원임

■그림 I-16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표 I-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Barclays	1,144.55	1,175.0	112.70	107.0	1.07	1.05
Standard Chartered		1,150.0		122.5		1.12
BNP Paribas		1,110.0		126.0		1.01
JP Morgan		1,165.0		106.5		1.12
HSBC		1,145.0		101.5		1.18

주: 2017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은 4월 말~5월 중순 기준 전망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2017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6년 1,160원에서 20원 하락한 1,140원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 및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17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하지만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중국 및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동향,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실질실효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완만한 강세가 예상됨
- 한편,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2017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트럼프 정책 기대감 후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선반영, 국내 경기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엇갈리고 있음(〈표 I-10〉 참조)

표 I-11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F)
회사채(AA-) 수익률	2.98	2.08	1.87	2.19
국채3년 수익률	2.59	1.79	1.44	1.70
원/달러 환율	1,053.1	1,131.5	1,160.4	1,140.0

주: 1) 2017(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기간 평균값

II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 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며 전년 대비 3.5%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 증가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이 부진을 이어간 가운데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함
- 2017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감소세가 둔화되겠으나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로 1.9% 증가가 예상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생명보험	117.2	6.0	119.8	2.2	122.1	1.9	1.7
손해보험	80.2	4.8	84.5	5.3	86.7	2.6	2.9
전체	197.5	5.5	204.3	3.5	208.8	2.2	2.2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017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²⁴⁾는 2016년 보험침투도보다 0.4%p 하락한 12.1%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6년보다 0.2%p 하락한 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 침투도도 5.0%로 2016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임

■ 표 II-2 보험침투도 전망¹⁾

(단위: %)

구분	FY2013 ^{2),3)}	2014	2015	2016	2017(F) ⁴⁾
생명보험	7.1	7.4	7.5	7.3	7.1
손해보험	4.9	5.2	5.1	5.2	5.0
전체	12.0	12.6	12.7	12.5	12.1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 / 명목GDP

2) FY2013부터는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임

4)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4)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7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²⁵⁾는 2016년에 비해 7만 1,000원이 증가한 405만 8,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7만 3,000원, 168만 5,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I-3 보험밀도 전망^{1),2)}

(단위: 천 원)

구분	FY2013 ^{3),4)}	2014	2015	2016	2017(F) ⁵⁾
생명보험	1,538(2,162)	2,193	2,316	2,338	2,373
손해보험	1,070(1,408)	1,519	1,585	1,649	1,685
전체	2,608(3,570)	3,712	3,901	3,987	4,058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괄호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5)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5)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개요

☒ 201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2% 성장에 그침

- 보장성보험은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등의 판매 증가,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절판효과, 간편심사 건강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6% 증가함
- 저축성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주식시장 정체 등으로 인한 생존보험,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4.5% 감소함
- 퇴직연금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계열회사 퇴직연금 계약이 급증하면서 22.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감소세가 둔화되겠으나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로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신(新)종신보험의 신규수요 둔화, 절판효과 감소 등으로 인해 2016년에 비해 2.2%p 하락한 4.4%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부진을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다소 만회하면서 0.3% 감소할 전망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성장세가 유지되며 전년 대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신규가입 여력이 적고 금융업권 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퇴직연금 신규수요 확대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0월 전망에서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1.7%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을 반영하여 증가율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함

■ 표 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전체	1,105,753	1.9	1,172,137	6.0	1,198,112	2.2	1,220,854	1.9	1.7
보장성 ²⁾	346,027	5.1	377,794	9.2	402,894	6.6	420,497	4.4	4.7
저축성 ³⁾	633,355	-5.0	649,618	2.6	620,348	-4.5	618,686	-0.3	-1.2
퇴직 연금	118,221	45.4	136,990	15.9	167,252	22.1	174,065	4.1	5.8
기타 ⁴⁾	8,150	-2.5	7,735	-5.1	7,619	-1.5	7,607	-0.2	0.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이 포함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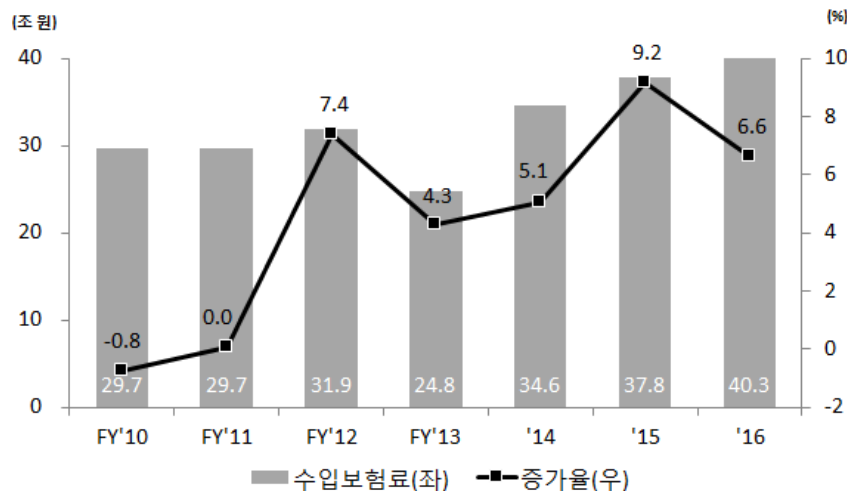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2) 보장성보험²⁶⁾

▣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판매 증가,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절판효과, 간편심사 건강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6% 증가함²⁷⁾

-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금 선지급형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저해지환급금형 종신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개발로 보장성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예정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보험료 인상 전 일시납 종신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함
- 질병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연령 및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함

■그림 II-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26)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27) 2016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제 수입보험료의 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신(新)종신보험의 신규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절판효과가 감소하면서 2016년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된 4.4%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²⁸⁾

-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저축성보험보다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신(新)종신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수요의 둔화가 예상됨
 -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마케팅 과열로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에 따른 판매채널 위축도 예상됨
- 한편, 예정이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보험료 인상 전 수요가 급증하는 절판효과 또한 예정이율 하락세 둔화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질병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종신보험 신규수요 확대의 한계와 절판효과 감소로 인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7%에서 4.4%로 하향 조정함

3) 저축성보험²⁹⁾

■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외형확대 전략에 따른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주식시장 정체 등으로 인한 생존보험,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4.5% 감소함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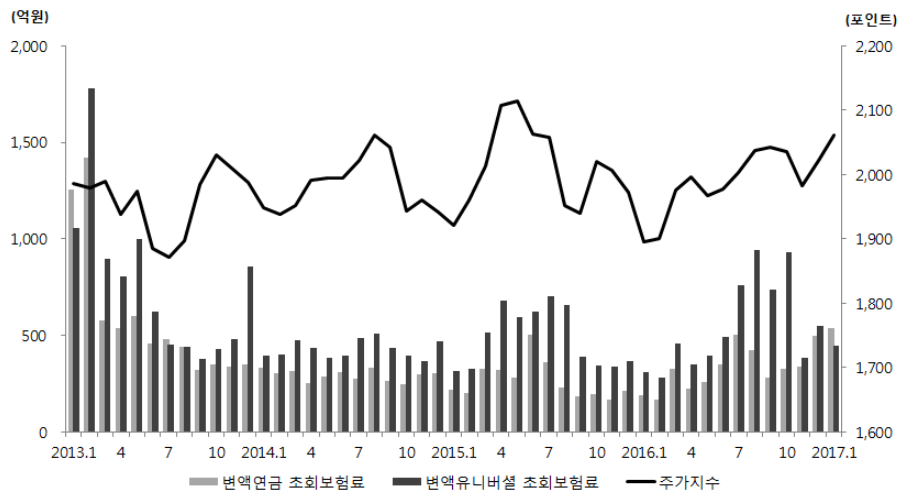
28) 2017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34.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29)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30) 201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1.8% 비중을 차지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외형확대 전략으로 일시납 보험료가 증가, 전년 대비 6.8% 성장함
- 반면,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에 의한 수요 감소와 금리 및 장수리스크 부담에 따른 보험회사의 소극적 마케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함
- 변액저축성보험³¹⁾ 또한 주식시장 정체와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됨
 -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중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 상승은 제한적이었음

■그림 II-2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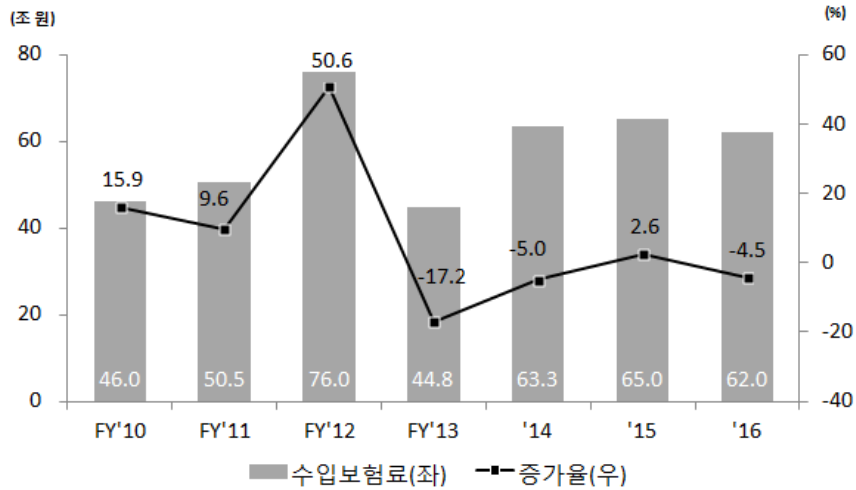


- 또한,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주식형 펀드 순자산 감소,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31)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 2016년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 대비 각각 8.1%, 4.4% 감소함

■그림 II-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부진을 변액저축성보험이 다소 만회하면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³²⁾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도 일부 보험회사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수요 둔화가 예상되면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세제변경 전 일시납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 고성장을 만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생존보험의 경우 저금리에 의한 수요 감소, 보험회사의 금리 및 장수리스크 부담 등 지속적인 부진의 원인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2017년에도 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32)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0.7%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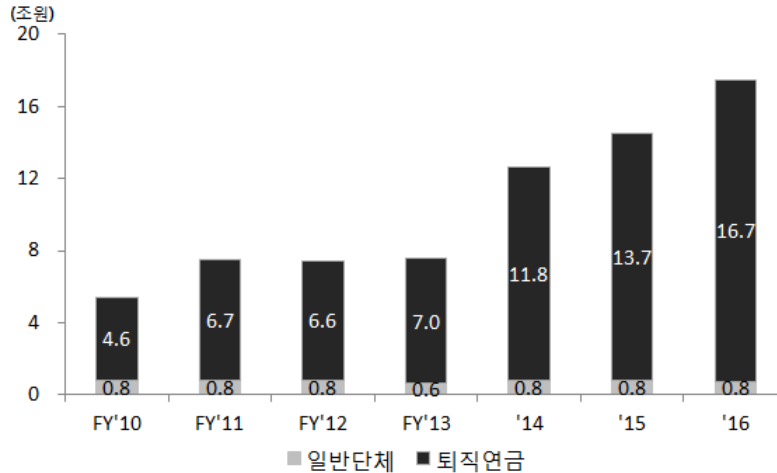
- 그러나 변액저축성보험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주가지수의 상승이 수요를 견인하고, 새로운 회계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예상됨
 - 주가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액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하에서 일반계정 상품에 비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 등 마케팅을 강화할 것임
- 기존 전망에서는 저축성보험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0.3% 감소로 수정 전망함
 - 다만,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변액저축성보험 판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수요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음

4) 퇴직연금

- ▣ 2016년 퇴직연금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계열회사 퇴직연금 계약 급증으로 22.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³³⁾
- 한편, 일반 단체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감소,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둔화됨

33) 2016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14.0%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II-4 단체보험(일반단체 및 퇴직연금¹⁾) 수입보험료



주: 1) 퇴직보험을 포함함

■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⁴⁾

- 2017년에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IRP 시장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신규가입 여력이 적고 금융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퇴직연금 신규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일반 단체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의 경우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수입보험료의 정체가 예상됨
- 기존 전망에서는 퇴직연금과 기타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각각 5.8%, 0.5%로 전망하였으나, 2016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각각 4.1%, -0.2%로 소폭 하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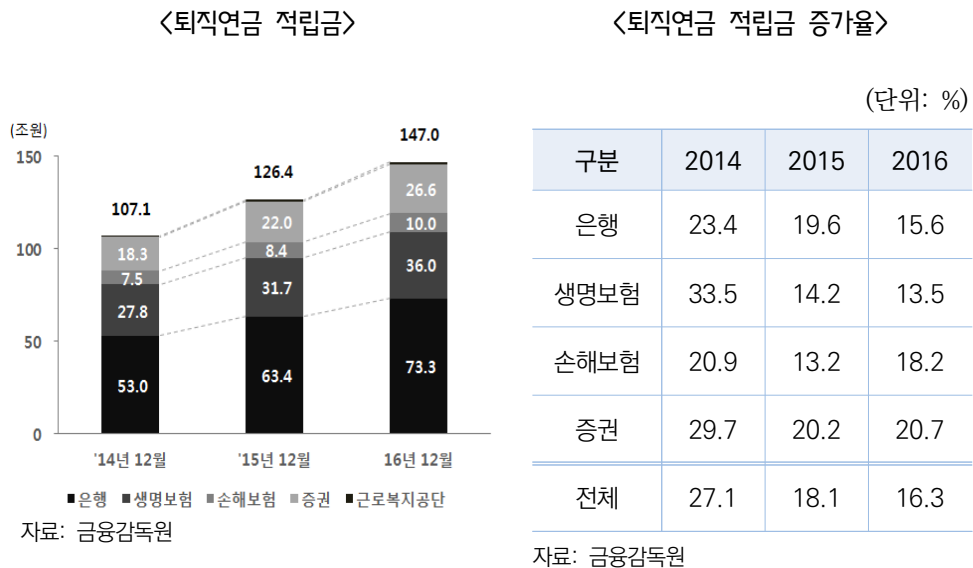
34)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14.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Box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보험산업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 297억 원으로 2015년 말 126조 4,000억 원에 비하여 16.3% 증가함
- 그러나 생명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13.5%로 다른 권역(은행 15.6%, 증권 20.7%)에 비해 낮음
- 은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하락 및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박스그림 및 표Ⅱ-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가율



3. 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요〉

■ 2016년 손해보험³⁵⁾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이 부진을 이어간 가운데 퇴직연금과 자동차보험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된 가운데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2.6% 증가함
- 연금부문의 경우 개인연금의 감소세는 지속되었지만 퇴직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3.7%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요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4%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보험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나 판매 비중이 큰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2.6% 증가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와 업종 간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이 확대(-4.3%)될 것으로 전망됨

35)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체 (2016년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온라인 보험 및 마일리지 보험 확대, 2016년 요율 인상 효과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 둔화 및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지속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회복세로 인해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기존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함

■ 표 II-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장기 손해 보험	합계	444,037	6.1	465,801	4.9	477,727	2.6	491,530	2.9	2.9
	상해·질병	213,233	14.3	243,162	14.0	271,537	11.7	298,388	9.9	10.0
	저축성	117,617	-2.4	104,650	-11.0	82,488	-21.2	62,736	-23.9	-22.5
	기타 ²⁾	113,186	1.5	117,988	4.2	123,703	4.8	130,407	5.4	4.3
연금 부문	합계	104,809	34.2	103,879	-0.9	118,160	13.7	116,490	-1.4	-1.1
	개인연금	41,090	-3.2	40,211	-2.1	38,768	-3.6	37,098	-4.3	-3.0
	퇴직연금 ³⁾	63,719	78.8	63,668	-0.1	79,392	24.7	79,392	0.0	0.0
자동차		135,484	5.2	149,914	10.7	164,053	9.4	170,615	4.0	4.8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일반 손해 보험	합계	81,424	-0.3	82,879	1.8	85,032	2.6	88,039	3.5	4.2
	화재	3,106	-3.6	3,041	-2.1	3,011	-1.0	3,010	0.0	0.0
	해상	7,343	-2.2	7,091	-3.4	6,080	-14.3	5,047	-17.0	-17.5
	보증	15,152	-0.6	15,816	4.4	15,909	0.6	15,924	0.1	-1.2
	특종 ⁴⁾	55,823	0.3	6,931	2.0	60,032	5.4	64,058	6.7	8.0
전체		765,754	8.3	802,473	4.8	844,972	5.3	866,674	2.6	2.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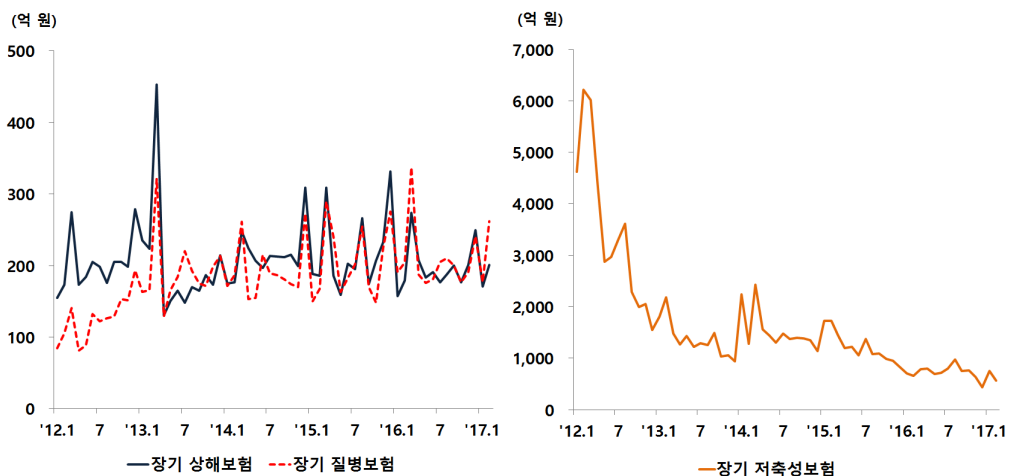
■ 2016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심화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친 47조 7,727억 원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10.0%,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간편고지보험상품 판매 증가,³⁶⁾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요율 인상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장세는 둔화됨

36)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10. 15), 「장기손해보험 고연령 보험가입률 증가 두드러져」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1.2% 감소하여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IFRS 17³⁷⁾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정책,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³⁸⁾ 금리리스크 확대에 의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증가 등으로 신규수요가 위축됨

■그림 II-5 장기상해 및 질병,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지율 안정과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37) IFRS 17하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요소는 매출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매출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음

38)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2.43%)

- 비록 신규수요 확대는 제한적³⁹⁾이나 의료수요 증가와 가입대상 확대,⁴⁰⁾ 보험료 현실화 등이 원수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보임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가계의 저축 여력 감소, 예정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2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노후 소득 보장 수요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2016년 확대된 초회보험료 감소세는⁴¹⁾ 보험소비자의 저축성보험 수요가 크게 위축됨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부진 지속과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의 저축 여력 감소, 그리고 2016년 6월 기준금리 인하⁴²⁾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와 공시이율 하락으로 신규수요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⁴³⁾ 등의 제도 변화와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⁴⁴⁾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2016년 각각 8.6%와 5.0% 성장했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39)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새로운 실손보험상품이 4월 11만 2,273건이 판매되었으나 기존 계약 전환 건수는 256건에 불과, 신계약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동아비즈(2017. 5. 25), “싼게 비지떡?...새 실손보험에 소비자 시큰둥”)

40) 최근 몇 년 전부터 유병자나 고연령 등 기존 거절체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아시아투데이(2017. 3. 22), “가입문턱 낮추고 보장 확대...유병자보험 판매 급증”; 한국경제(2017. 6. 15), “유병자보험 돌풍에 걱정 느는 보험사”)

41)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5년 전년 대비 20.3%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40.6%의 감소세를 나타냄

42) 2016년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조정함

43) 평균공시이율 기준 납입기간 완료 시점(최대 7년)에 환급률 100% 이상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함(2017년 1월 시행)에 따라 사업비 인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44) 예정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금리리스크 확대에 의해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부담이 커지고 있음

- 2017년에도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된 경영환경은 2016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 2.9%를 유지함.
- 2017년 하반기 국내 시중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장기 상해·질병보험 수요는 2016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표 II-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 전망
상해·질병	213,233	14.3	243,162	14.0	271,537	11.7	298,388	9.9	10.0
저축성	117,617	-2.4	104,650	-11.0	82,488	-21.2	62,736	-23.9	-22.5
기타 ³⁾	113,186	1.5	117,988	4.2	123,703	4.8	130,407	5.4	4.3
합계	444,037	6.1	465,801	4.9	477,727	2.6	491,530	2.9	2.9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6년 개인연금⁴⁵⁾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3조 8,768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법 제정(안) 발표,⁴⁶⁾ 금융업권 간 경쟁 심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입 여력 감소,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발표⁴⁷⁾ 등의 영향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됨

45)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을 연금저축이라 말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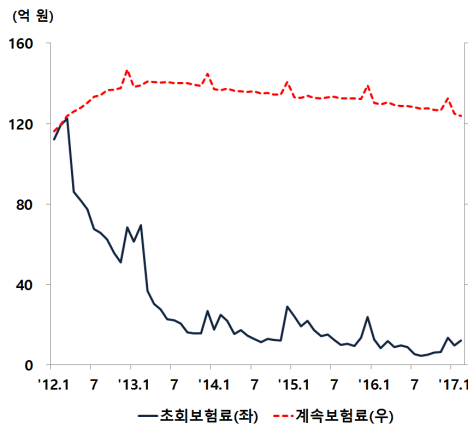
4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5. 31),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8),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47)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기획재정부(2016. 12. 28),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7조 9,392억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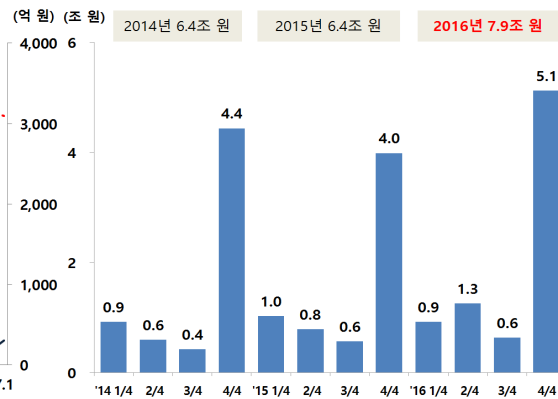
- 일부 보험회사의 계열사 물건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II-6 개인연금 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7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은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⁴⁸⁾ 계속보험료도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초회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성장 여력이 약화된 데다 저금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공시이율 하락으로 소비자의 구매 동기가 약화되고, 저축성보험 상품 설계기준 변경(2017. 1.)⁴⁹⁾으로 회사의 판매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임

48) 2016년에는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47.1% 하락한 실적을 기록함

49) 동 감독규정시행(2014. 12. 31 신설, 2017. 1. 1 시행)으로 저축성보험은 평균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계약만기가 아닌 납입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100% 이상이 되도록 상품설계 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기간이 짧아지고 사업비 책정이 어려워지는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성 저하가 우려됨

- 2016년 초회보험료의 급격한 감소 및 계속보험료 감소세 심화로 2017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3.0%에서 -4.3%로 하향 조정함
 - 2017년 금리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할 것이나 공시이율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손해보험회사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016년 수준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퇴직연금시장은 은퇴시장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기업 퇴직연금시장의 포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외에도 경기침체 지속 및 구조조정 지속으로 인한 신규가입 수요 부족, 은행과 증권회사의 DC형 퇴직연금시장 확대,⁵⁰⁾ 손해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이 퇴직연금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7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2016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50) 2016년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적립금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적립금은 15.4% 증가함(금융감독원(2017. 5), “2016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표 II-7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개인연금	41,090	-3.2	40,211	-2.1	38,768	-3.6	37,098	-4.3	-3.0
퇴직연금 ²⁾	63,719	78.8	63,668	-0.1	79,392	24.7	79,392	0.0	0.0
합계	104,809	34.2	103,879	-0.9	118,160	13.7	116,490	-1.4	-1.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동차보험〉

■ 2016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⁵¹⁾ 시행, 요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16조 4,053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 등록 대수는 다양한 신규차량 출시, 개별소비세 인하⁵²⁾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됨⁵³⁾
- 보험요율 인상, 고가수리비 차량 관련 할증, 외산차의 가입건수·금액 증가, 대물 가입금액 고액화, 자차담보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한 대물담보 보장 확대⁵⁴⁾ 등으로 원수보험료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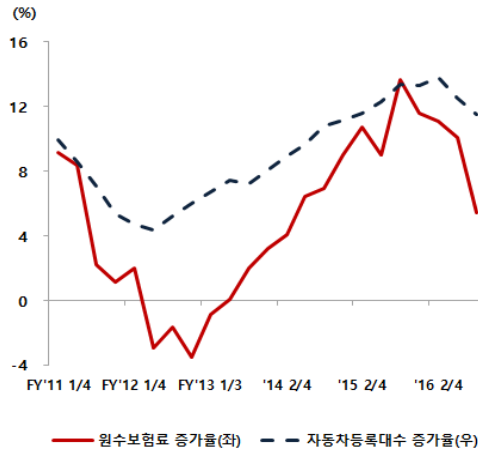
51)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2016. 4. 1 시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함

52)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부는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함

5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1. 17), “자동차 등록 대수, 2천 2백만 대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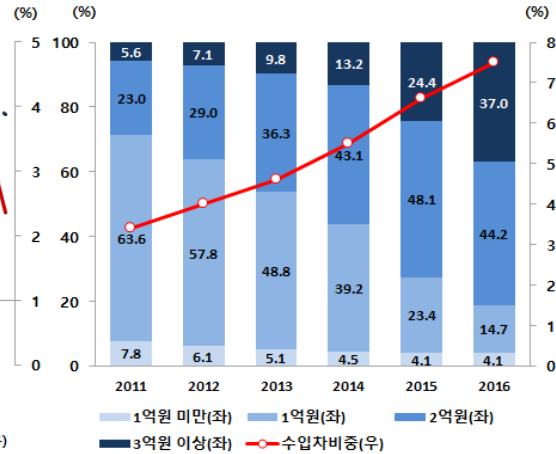
54)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4. 6), “2015년 자동차보험 할인형상품·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

■그림 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와 등록 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그림 II-9 수입차비중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2016년 말 요율 인하 효과 등으로 4.0% 증가할 전망이다

- 2016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3.9%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대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에 따른 원수보험료 증가는 외산차 가입 증가세 둔화⁵⁵⁾에 따라 정체될 예상
- 2017년 들어 자동차보험 손익이 다소 개선되며 보험요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및 마일리지 특약 가입 확대⁵⁶⁾ 등 대당 보험료 감소 요인도 존재함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2017년 전망을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함

55) 2017년 4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7.0% 증가, 2016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23.2% 증가

56)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7. 4. 23), “자동차를 적게 타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갑니다.”

■ 표 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자동차	135,484	5.2	149,914	10.7	164,053	9.4	170,615	4.0	4.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일반손해보험〉

■ 2016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2.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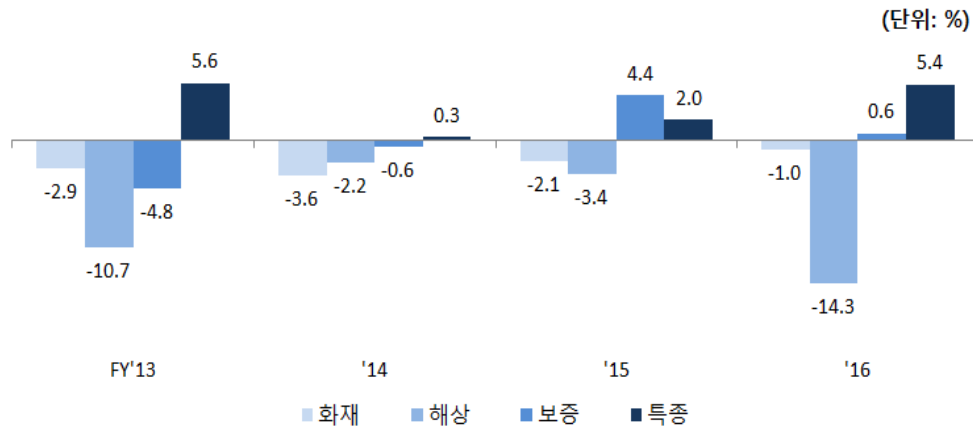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발생률 감소로 인한 보험요율 인하, 타 보험으로의 계약 이전⁵⁷⁾ 등으로 1.0% 감소함
 - 전통시장화재, 지진사고 등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율 인하와 재산종합보험 등 타 종목으로의 이탈이 지속되며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출 경기 침체 및 조선·해운업계 불황 등으로 인한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의 실적 부진으로 14.3% 감소함
 - 수출 관련 화물 물동량 급감,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황 및 구조조정에 따른 경비절감 목적으로 보험수요가 크게 감소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수요 증가⁵⁸⁾ 등으로 0.6% 증가함

57)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장기 재물 및 통합형보험 등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들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이들 종목으로 분산됨에 따라 일반보험 형태의 화재보험 계약은 상대적으로 감소함

58) 조선비즈(2017. 1. 23), “‘강통전세’ 100% 보장해주는 보험, 지난해 2.5조 신규가입, 26% 급증”

-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⁵⁹⁾ 신용보험 등의 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감소와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2.6%)과 배상책임보험(13.4%) 실적 개선에 힘입어 5.4% 증가함
-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확대, 단체상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시장 확대 등의 여파로 보험수요 증가

■그림 II-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3.5%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의 경우 2016년에 이어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5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3. 13). “'16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7.1% 감소”

- 화재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안정적 손해율⁶⁰⁾로 인한 요율 인하, 공장 해외 이전,⁶¹⁾ 타 보험으로의 이탈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속,⁶²⁾ 해상보험시장의 축소⁶³⁾ 등에 따라 17.0% 감소가 전망됨
- 보증보험은 신용보험 시장 확대 및 건설허가 증가에 따른 보증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조선업 구조조정과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어⁶⁴⁾⁶⁵⁾ 0.1%의 부진한 성장이 전망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의 높은 성장세로 6.7% 증가가 전망됨
 - 배상책임보험 의무화⁶⁶⁾ 및 확대,⁶⁷⁾ 드론 활용⁶⁸⁾ 등으로 인한 신시장 확대, 단체상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시장 확대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기업성 보험 가격자유화 시행⁶⁹⁾으로 인한 요율 경쟁 심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60) 2014년 55.4%, 2015년 49.8%, 2016년 56.5%를 기록함

61) 대한상공회의소(2017. 5),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62) 국민일보(2017. 5. 31), “조선·해운 위기 여전히 진행형… 조선 부실채권 ↑ 해운 운임지수 ↓”

63)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 파산 등의 영향으로 해상보험시장 규모는 2015년 7,091억 원에서 2016년 6,080억 원으로 14.3% 감소하였으며, 조선·해운업 현황이 개선될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2017년에도 해상보험 매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서울경제(2017. 5. 21), “삼성화재 해상보험 수입료 38% 급감… 해운불황에 직격탄 맞은 손보사”)

6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11. 2),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65) 한국개발연구원(2016. 11. 4),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66) 2017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7. 4. 18 공포, 10. 19 시행 예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업소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함

6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17. 4. 18 공포, 10. 19 시행 예정)에 따라, 특수건물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68)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드론 촬영정보 유출배상책임, 드론 적하물 손해 또는 적하물 낙하 배상책임, 드론 고장 및 분실 등의 리스크 발생이 전망되며 이를 보상해주는 관련 보험을 드론 보험이라 할 수 있음

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 7), “기업성 보험 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 경쟁 촉진”

- 이에 따라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5%로 하향 조정함

■ 표 II-9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4		2015		2016		2017(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화재	3,106	-3.6	3,041	-2.1	3,011	-1.0	3,010	0.0	0.0
해상	7,343	-2.2	7,091	-3.4	6,080	-14.3	5,047	-17.0	-17.5
보증	15,152	-0.6	15,816	4.4	15,909	0.6	15,924	0.1	-1.2
특종 ²⁾	55,823	0.3	56,931	2.0	60,032	5.4	64,058	6.7	8.0
합계	81,424	-0.3	82,879	1.8	85,032	2.6	88,039	3.5	4.2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저자약력

총 괄

전용식(연구위원)

경제·금융

해외경제 권오경(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연구원)

국내금융 이해은(연구원)

보험산업

생명보험 김세중(연구위원)

이해은(연구원)

손해보험 김진억(수석담당역)

정인영(연구원)

CEO Report 2017-0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발 행 일	2017년 7월
발 행 인	한 기 정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3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